

No.128

Japan Weekly Digest

2012. 4. 28 ~ 2012. 5. 4

1

○ .

2

○ , .
○ . .
○ ,

3

4



사단법인 한일경제협회
Korea-Japan Economic Association

※ 자료제공 : 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

※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(<http://www.kje.or.kr>)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
있사오며, 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(Tel.02-3014-9888)

① 주간 경제 초점 : 미·일 정상회담

- 노다 일본 총리가 2009년 민주당 정권 출범 이후, 처음으로 미국을 공식 방문 (4.29-5.2),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

□ 미·일 공동성명 내용

- 공동성명에는 미·일 동맹, 경제문제,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질서 구축, 글로벌 과제에 대한 대응 등으로 구성된 공통 비전과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구축한다고 하는 것이 골자
- 미·일 동맹은 일본의 안전보장,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, 경제적 번영에 필수 불가결함을 확인, 미·일 양국이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임을 강조하는 한편, 중국의 군비확대, 해양 진출 등을 염두에 두고 있음
- 글로벌 과제에 대한 대응으로는 테러, 대량파괴병기 확산, 해적 대책 등에 대한 대응을 명기. 인권문제를 비롯하여 해양, 우주 사이버 공간 등이 법과 룰에 기초하여 이용되어야 하는 점 등 모두 중국에 대한 미·일간 연대 강화를 염두에 두고 있음

□ 우주·사이버 등에 대한 공동 대책

- 공동성명은 해양, 우주 사이버공간 등 3개 분야에서 국제적인 룰에 기초한 이용을 촉진시킬 방침인데 중국에 의한 해양자원 확보나 우주개발을 고려한 것임
- 우주분야에서는 미·일이 지구위치시스템(GPS의 공동개발) 등 민생협력도 목표로 하고 있음
-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중국이 독자적으로 GPS를 구축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, 일본은 미국과 함께 공동개발을 서둘러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구상임

□ 아태지역 경제협력 문제

-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권 구축이라는 APEC의 장기적인 목표에 따라서 높은 수준의 무역·투자제도를 구축
- 동아시아 정상회의 및 APEC 등을 통해 개방적이고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규범을 지탱하는 제도를 강화

□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(TPP) 문제

- TPP에 대해서는 일본의 교섭참가를 위한 미국과의 사전협의를 진전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음
- 미국 내에서는 보험, 자동차 등 분야에서 일본의 TPP 참가를 우려하고 있는 반면, 일본에서는 농업 관련단체 등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, 노다 일본총리는 이번 회담에서는 교섭참가를 발표하지는 않았음
-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자동차 및 보험 업계를 중심으로 일본시장 개방을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, 미국 내 자동차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강조

□ 기타 글로벌 과제

- 그밖에도 이노베이션, 창업, 서플라이체인, 인터넷경제, 과학기술, 여성의 창업, 재생가능 에너지원 개발 및 원자력에너지의 안전이용, 에너지 안전보장에 관한 협력 등도 공동성명에 포함

□ 미·일 공동성명의 평가

- 미·일 정상이 포괄적인 분야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은 2006년 고이즈미 총리와 부시 대통령 간의 발표 이후 처음임
- 이번 공동성명 가운데 경제 분야에 관한 주요 포인트는 다음 3가지로 집약
 - (1)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무역투자에 관한 높은 수준의 제도 구축
 - (2) TPP에 관한 미·일 2국간 협의 진전 노력
 - (3) 미·일의 공통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협력 확대 및 동맹 강화
- 전체적으로 볼 때, 이번 공동성명에서 언급한 TPP도 미국 주도의 대중국 전략의 하나로, 안보만이 아니고 경제 분야에서도 미·일이 공동보조를 취해 중국에 대응한다는 점이 주목

② 산업 및 통상 전략

□ 희토류의 중국의존 탈피를 위해 민·관 연대 협력

- 일본정부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희토류의 조달처 확대에 박차. 에다노 경제산업대신은 인도와 카자흐스탄을 방문, 차세대 자동차 개발에 필요한 희토류 확보방안을 마련하는 한편, 미·일 정상회담에서도 재이용 협력 등에 합의
-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 중국에게 국제적인 분쟁해결 수단도 사용하여 타개책을 서두르고 있으나, 해결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듯함
- 카자흐스탄을 방문한 에다노 경산대신은 대일 수출용 희토류의 공동개발과 수출확대에 합의, 6월부터 지스프로시움을 카자흐스탄 공장에서 연간 60톤을 생산기로 함(일본의 총수요는 약 500톤)
 - 정부간 합의에 의해 스미토모상사와 카자흐스탄 국영자원공사기 설립한 합작기업인 SARECO가 생산과 수출을 담당
 - 신에츠화학공업도 우라늄에서 희토류를 정제, 분리하기 위한 기술협력을 실시하고, 일본의 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(JOGMEC)에서 자금을 협력
 - 카자흐스탄에서는 우라늄 정제 시 희토류를 부산물로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, 다른 나라에서 생산하는 것보다도 비교적 비용이 저렴하다고 함
- 일본과 인도 정부도 자동차 모터 및 배기가스 삭감을 위해 사용되는 세 종류의 경희토류를 8월부터 수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, 일본 총수요의 10%정도를 인도 수입으로 충당하게 됨
- 일본정부는 현재 중국에게 수출제한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한편, 베트남 등과 자원개발 협력을 추진 중이며, 민간 기업들도 여기에 보조를 맞추고 있음
 - 도요다통상소지츠연합이 베트남의 현지기업과 합작을 추진하고 있고, 호주에서는 소지츠와 JOGMEC이 현지 개발기업에 출자, 일본에 장기공급을 계획하고 있음
- 미·일 정상회담에서도 희토류의 리사이클 위한 연구개발 분야에서 협력기로 합의

□ 한·중·일 상호인증 확대로 기업비용 절감

- 한·중·일 3국이 환경부하가 적은 소재를 사용한 제품을 인정하는 에코마크제도의 상호인증 절차에 합의. 이에 따라, 각국이 인정기준을 통일시킴으로써, 상대국가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게 하여 기업의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됨
 - 지금까지는 PC에만 국한되었으나, 복사기, 프린터 등 대상을 확대하여 상호인증의 절차와 운용방법을 통일
- 3종류 이상의 에코마크가 한·중·일 상호인증에 합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. 한·중·일은 2007년에 PC의 상호인증에 관한 공통기준을 제정하는데 합의, 소재의 화학물질 및 폐기물의 해체기준 등을 공통화시켰음
- 이번에는 공통화 대상을 복사기, 프린터, 복합기까지 확대하여, 인증에 이르기까지의 수순이나 비밀유지 등 운용규칙도 제정할 예정
 - 상대국 시장을 개척하려는 기업은 에코마크의 상호인증을 통해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. 따라서 인증제품이 많은 나라에서 인정될수록 그만큼 환경친화제품의 시장 확대에 이어지는 이점이 있음
- 일본의 에코마크는 금년 3월말 현재 5,118개 품목이 인정, 중국에서는 4만개 품목 이상, 한국에서는 7,000개 품목 이상이 각각 인정되어 있음

□ 중국 인건비 상승, 중국진출 일본기업의 최대 경영 압박요인

- 일본경제신문이 발표한 ‘중국진출 일본기업에 관한 앙케이트 조사’에 의하면, 인건비 상승이 중국사업의 최대 수익압박 요인이 되고 있음
- 1년 이상 지속된 금융긴축으로 중국의 경기둔화가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, 2011년도 수익전망이 10%이상 감소할 것으로 응답한 일본기업이 19%에 달함
- 최대 요인은 임금상승으로 최근 임금인상 동향을 보면, 전년 대비 두 자리 수의 임금 상승을 보인 기업은 2010년 51%에서 2011년 77%로 확대. 2012년도 임금상승률 전망치는 66%로 인건비 상승이 수익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
- 응답기업의 59%가 ‘인건비 상승’을 중국사업의 리스크로 파악하고 있으며, 두 번째 요인인 ‘중국경제의 성장감속’ 35%와 격차가 큼
 - 위안화 가치 상승도 수출거점으로서 중국의 매력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
- 일본기업은 중국을 글로벌전략 중심지로 활용하기 위해 중국인 간부 채용, 중국 전용모델 개발 등과 같은 현지화를 추진하면서 시장개척을 추진

③ 일본기업의 협력동향

일본기업	발표일자	업종	대상국가(기업)	사업형태(내용)
이스즈	2012.4.30	자동차	미국(GM)	자본·업무 제휴
스미토모상사	2012.5.1	자동차수리	미국(마이더스)	직접투자/매수(매수가 약 250억엔)
신에츠화학	2012.5.1	도료재료	미국	직접투자/투자규모 96억엔, 건축용 도료에 사용되는 재료의 생산 공장 건설
하우스식품	2012.5.2	식품	중국	자본제휴/대련시에 진출해 있는 기존 일본기업에 출자(주식34%취득), 카레 생산
고바야시제약	2012.5.2	제약	중국	직접투자/9억엔 투자, 냉각시트 생산 공장 건설
그로브라이드	2012.5.2	납시도구	태국	직접투자/고급릴 생산 공장 건설, 일본에 수출
마루베니	2012.5.2	리스업	중국	자본제휴/홍콩 자동차리스 회사에 20%이상 출자
밴드화학	2012.5.3	전동벨트	베트남	직접투자/투자규모 8000~9000만엔, 자회사 설립
동경해상일동화재보험	2012.5.3	보험	중국	직접투자/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에 진출
닛산르노	2012.5.4	자동차	러시아(아후트와즈)	직접투자/600억엔 매수(아후트와즈 주식의 50%이상 취득으로 경영권 장악)
이토쥬	2012.5.4	광산개발	미얀마	자원개발/희소금속광산개발 사업화조사 착수
일본정부	2012.5.4	국채구입	한국	한국국채 구입 검토

* 자료: 일본경제신문기사에서 정리

④ 주요 연구보고서 정보

(1) 『2020년 중국의 소비시장』 닛세이기초연구소, 4월28일

*출처:http://www.nli-research.co.jp/report/econo_letter/2012/we120427chi.html

(2) 『격동하는 세계경제와 일본의 역할』 미쓰비시UFJ리서치·컨설팅, 4월28일

*출처:<http://www.murc.jp/report/quarterly/201202/02.pdf>

(3) 『공동화 완화와 경제서비스화의 양립 방법』 제일생명경제연구소, 5월2일

*출처:http://group.dai-ichi-life.co.jp/dlri/rashinban/pdf/et12_026.pdf

(4) 『중소기업의 경영과제와 해외전개에 관한 앙케이트 조사』 오오사카상공회의소, 5월3일

*출처:http://www.osaka.cci.or.jp/Chousa_Kenkyuu_Iken/press/120502ankt.pdf

(5) 『불가해한 TPP반대론』 국제무역투자연구소, 5월3일

*출처:<http://www.iti.or.jp/flash155.htm>

(6) 『국제적 파워밸런스 변화에 따른 적정 외교자원 배분』 PHP종합연구소, 5월3일

*출처:http://research.php.co.jp/research/foreign_policy/pdf/h23_mofa_gaikoshigen.pdf